

# 전주푸드, 연매출 20억원 달성 '쾌거'

### 전체 매출액 90% 18억원 농가 환원 지역 농가 소득에 큰 보탬

전주시가 시민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전주푸드 플랜을 통해 올 한해 20억원의 매출을 기록,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주시와 전주푸드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한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하는 관계시장 형성을 위해 효자동 전주푸드 직매장 2호점과 종합경기장 3호점을 잇따라 개설하고, 지난 10월에는 슬로푸드레스토랑이 전주동물원 내에 문을 열면서 전주푸드를 통해 총 20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전주푸드의 올해 전체 매출액의 90%인 18억원이 농가에 고스란히 환원돼, 앞으로도 전주푸드 플랜이 전주지역 농가의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재단은 전주푸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지역의 생산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가족농 중심의 다품목 소량생산 및 연중공급체계의 생산 전환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올해 현재 약 1081여 농가가 출하자격을 획득했고, 약 1005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또한 전주푸드 직매장 1~3호점과 슬로푸드레스토랑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월드컵경기장에 총 1700㎡ 규모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되면서 학교와 어린이집, 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 전주푸드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적 물류기반도 갖췄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저온저장고와 농민가공실, 농산물처리실, 안전성 관리실을 갖춘 명실상부한 전주푸드 허브(hub)로, 시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전주시는 27일 종합경기장 너거리에 자리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층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푸드 참여농가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전주푸드 플랜의 성과를 총 결산하고, 전주푸드의 생산능력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2016년 전주푸드 생산자 진전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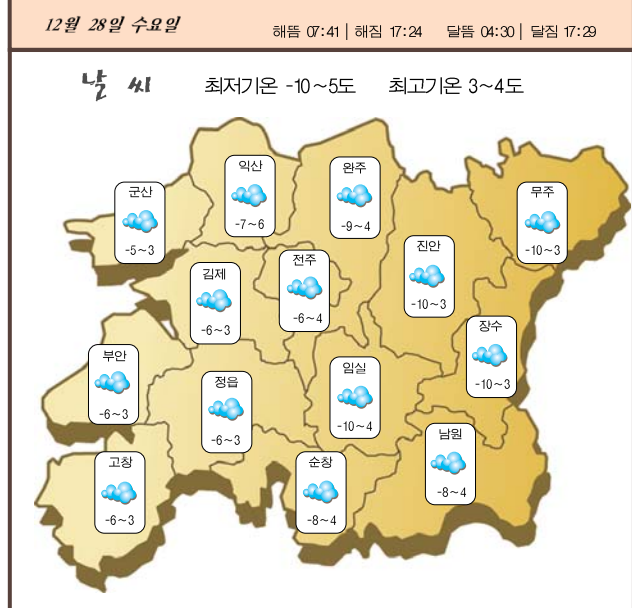
를 통해 학교 및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연결하는 일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7일 종합경기장 너거리에 자리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층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푸드 참여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전주푸드 플랜의 성과를 결산하고, 전주푸드의 생산능력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6년 전주푸드 생산자 진전대회'를 가졌다.

대도시 먹거리전략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안팎으로 확보한 한 해로 평가하고, 새해에는 △작부체계 활성화 등을 통한 실질참여농가 확대 △농민가공 촉진을 통한 부가치 증진과 품목 다각화 △직매장의 내실화 △소비자 조직화 강화 △학교 및 공공급식 조력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밥상과 농업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주푸드 플랜은 지속가능한 도시 및 사람중심의 도시 실현의 핵심 전략과제'라며 '매장 한 두개의 문제가 아니라 시

민먹거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농민과 시민이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를 새로운 먹거리관계를 통해 증명해 나가는 것이 전주푸드의 성공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민과 시민 농업과 밥상을 연결하는 통합적 현장실행조직으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 내년에는 농협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전주푸드의 저변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도내 특성학교 취업역량강화캠프 열려

### 동기부여·분야별 전문 교육·미래설계 등 3개 파트 진행

도내 특성학교 취업역량강화캠프가 28일부터 이틀간 전주비전대 창조관에서 열렸다.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실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도내 7개 특성학교 1~2학년 학생 2백50여명이 참여했다.

군산여상 장계공고, 전주상업정보고, 완산여고 학생들이 28일, 강호항공고, 남원용성고, 이리공고 학생들이 27일 참여했다.

캠프는 오전 9시30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후 5시30분까지 계속됐으며 기업 인사 담당자 기업 대표 등이 강사로 나와 특강 형식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기의 비전을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기부여', 전문 강사가 전공별로 취업분야에 알맞은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분야별 전문 교육',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기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미래설계' 등 3개 파트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개인별로 취업캠프와 그후에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취업 시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또 학생들 커리어와 스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캠프 수료증이 발급됐다.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특성학교 학생들이 상황별 실전 연습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 전주시, 인재양성 맞춤형 ICT/SW교육으로 취업시장 활기

### 올 한해 241명 수료 81.3% 196명 취업 성공

전주시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한 맞춤형 ICT/SW교육이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올 한해 진행한 각종 교육과정에 총 241명이 수료해 이 중 81.3%인 19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 306명의 교육 수료자 중 261명이 취업에 성공해 8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던 진흥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를 꾸준히 지원해 수료생의 85% 이상이 취업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진행한 주요 교육과정은 지역 내 ICT/SW기업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스마트콘텐츠(Android) 개발과정, △UX/UI를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 디자인 과정, △ICT 융합 맞춤형 교육과정, △디지털 영상

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유니티3D 게임제작 전문과정, △웹 접근성 전문 교육 등이다. 또 교육 참여자들의 면접스킬 향상을 위한 내추럴 스피치 교육과 소통과 협력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제공했다.

특히 진흥원은 맞춤형 교육 진행 시 단순히 교육만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수료자들의 성과와 개인별 프로젝트 결과물(포트폴리오)을 지역 업체에 소개하고 추천활동을 병행하는 등 취업 연계활동도 활발히 전개해왔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역 ICT/SW 기

업을 대상으로 수요인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분야 실무 및 강의경력이 풍부한 10년 이상의 최우수강사를 섭외해 교육 수준과 수료자의 수준도 높였다.

시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모바일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지역 ICT/SW 기업의 인력수요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진흥원의 맞춤형 교육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많은 구직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전북도교육청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주식회사 강동오케이(대표 강동오), 유한회사 알뜰달공기(대표 방재권), 인산복지재단 사랑드림(대표 오미화)과 27일 오전 11시 분청 5층 접견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체험활동에 지원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 체험인프

라 확충 추진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특수학교(급)의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한다.

/정해은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